

신년사

“중소, 경제구조 전환 주역 육성” “창업·교육 컨설팅 꼼꼼히 챙겨야” “지원기금 본연 역할 충실할 때”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준비된 자, 위기는 기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다. 중소벤처기업을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대표적인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이 3일 진주본사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김 이사장은 “새해 중소기업이 마주할 경영 환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일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중진공이 나라 안팎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펼친 지난해 성과도 하나하나씩 언급했다.

▲코로나 피해·원자재 수급 애로 기업 등 4936개사에 총 8000억원 지원 ▲수출 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한 물류지원 및 5000억원 규모의 수출자금 확대 지원 ▲고용유지플러스자금 신설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 ▲BIG3 신산업·D.N.A 분야 유망기업에 425억원 규모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ESG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경영 저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저탄소 및 ESG 경영 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면서 “경제구조 전환이 중소벤처기업에게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진공이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범위를 기존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시행착오 최소화” 주문

“소상공인 창업·교육 컨설팅, 재도전 등의 업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협동화, 소공인지원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소상공인 지원 참여에 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이 새해를 맞아 3일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조 이사장은 2019년 3월부터 소상공인 이사장을 맡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문에 소상공인도 2014년 통합·발족한 후 최근 2년을 가장 바쁘게 보냈다.

조 이사장은 “2년여 동안 쉽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긴급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한(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인사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과 긴급대출로 올해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지난 연말에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방역지원금 지급을 차질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후속 지급과 방역물품비 지원도 차질없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진공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지지도 잊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등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대상자 선정, 보조금 적기 지급, 비즈니스 모델 고민 등에 창의적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보 강화도 강조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공단의 지원정책을 몰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채널·방법 등으로 적극 다가가야 한다면서 “조 이사장은 ‘인력은 한정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단의 미래, 전문성 제고, 핵심기능,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속제도 던졌다.

/김승호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
“도전적 창업 환경 조성”

“어려운 시기야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때다.”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보증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은 3일 “시대적 요구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혁신기업과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본분에 충실한 기보가 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금 역량 집중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기술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과 공적 투자기능 강화 등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혁신기업을 지속 지원하고 혁신성장산업, 비대면·디지털기업 등 중점분야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청년기업과 우수기술기업 창업 유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도전적 창업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평가시스템 고도화와 문화콘텐츠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츠·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인공지능(AI) 기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엔 혁신적 R&D기업·지적재산권(IP) 기업 사업화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중소기업 기술자립 지원, 정부 등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기술평가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김 이사장은 “민간과 연계해 활발한 창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들의 스케일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양방향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초저금리 ‘희망대출’ 본격화

중기부, 14만곳에 총 1.4조 규모 정책자금 이용자 중복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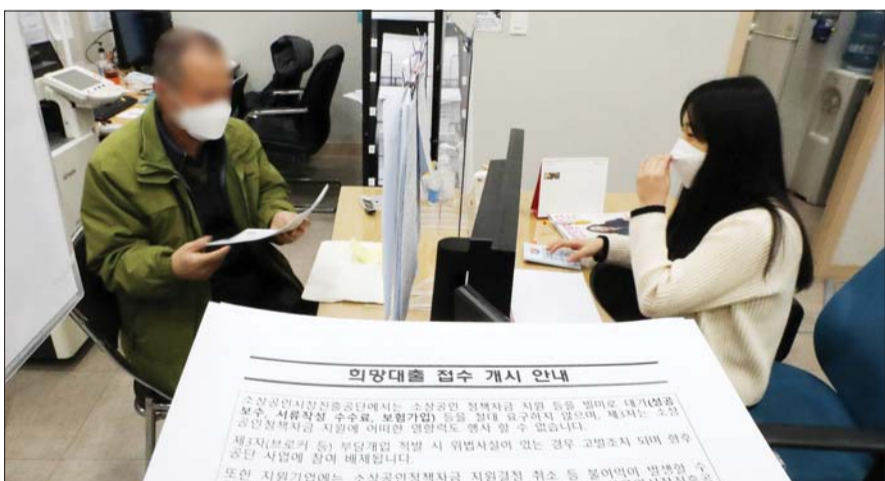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이 3일 본격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는 희망대출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 받은 업체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들 총 14만곳에 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희망대출은 이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일상회복 특별용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물론 세금채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고객이 희망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뉴시스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에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경우 4일에,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교원스타트원 창업공간’ 1호점 이달 오픈

공유 오피스·물류 풀필먼트 등 제공

을 열 계획이다.

교원그룹이 이커머스 사업자 및 예비 창업가를 위한 ‘교원스타트원 창업공간’을 새롭게 선보인다.

3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그룹내 물류사업 전담 계열사인 ㈜교원스타트원에서 추진하는 신사업인 교원스타트원 창업공간은 이달 중 서울 성수동에 1호점

을 열 계획이다. 교원스타트원 창업공간은 교원그룹의 성수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있어 입주사들에게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공유 오피스와 택배 서비스, 공유 창고는 물론 도·소매 시장과의 인접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스튜디오, 미팅룸 등 이커머스 사업자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웨딩멤버스’ 예비부부 혜택 강화

700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추가

으로 지난해에만 1만1600명이 가입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80%가 실제로 에이스침대 제품을 구매하고 풍성한 멤버십 혜택을 받았다.

에이스침대가 새해를 맞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 ‘에이스 웨딩멤버스’를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 웨딩멤버스는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멤버십 프로그램

웨딩멤버스에 가입한 신혼부부에게는 제품 구매 금액별로 신혼여행에서 활용하기 좋은 고급 캐리어와 작은 사이즈로 휴대성이 높은 미니 캐리어를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철책 월북자, 1년여전 ‘점프 귀순’한 체조경력 탈북민과 동일인 /사진 뉴시스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855%로 올라

▲ 재계 2022년 신년사 키워드는 ‘고객경험’, ‘탈탄소’, ‘조직문화’
▲ 테슬라, 차 구매 취소했는데 수수료 안돌려줘…공정위, 제재 착수



▲ CJ대한통운 파업 일주일…하루 평균 40만개 배송 차질
▲ 현대차도조 “정규직 총원해야”…향후 매년 수천명 정년퇴직 예상 /사진 뉴시스